

다시 그 제대로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청량리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렇게 본당 소식지를 통해서 교우 여러분들과 나눔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 공문에 제가 이곳 청량리성당으로 발령이 난 것을 확인하면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량리성당은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69년 12월에 부모님 품에 안겨 제단 앞에 나와 유아세례를 받았고, 여섯 살 때까지 저의 유아시절을 지냈던 성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어릴 적 이야기 중에 한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다섯 살 즈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미사에 왔을 때 경건한 미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제가 갑자기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면서 제대 앞으로 달려나갔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당황하시며 허둥지둥 저를 끌어안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

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제대 앞으로 달려나가던 당신 아들이 결국에는 그 제대 위에서 미사를 집전하

는 사제가 되었다고 회자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발령을 받고 그 이후 묵상 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 많은 성당 중에 이곳 청량리성당으로 저를 다시 보내신 하느님의 뜻은 아마도 그렇게 처음 당신 대전 앞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제대로 다시 돌아가 초심의 마음으로 더욱 충실한 사제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뜻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제가 사제서품을 받은 지 25주년, 은경축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자비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예전부터 늘 그렇게 함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자리, 바로 이곳 청량리성당에서의 5년간의 사목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느님 안에 더욱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022년 3월에

주임신부 이용현 알베르토

이용현 알베르토 신부님 부임 (2022년 2월 8일)



박상호 요한마리아비안네 사제 수품 (서품식 : 2022년 1월 28일, 첫미사 : 1월 30일)



김중호 마르코 신부님 이임 (2022년 2월 8일)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김중호 마르코 신부

찬미예수님. 저는 지난 1월 28일 사제 서품을 받은 박상호 요한마리아비안네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성소의 여정에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제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항상 저를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제 동생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이끌어주셨던 청량리성당 김중호 마르코 주임신부님, 그리고 저를 위해 영적, 물적으로 뒷받침해주신 청량리성당 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많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느끼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 불릴 자격이 없으나, 그럼에도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달라는 뜻에서 서품 성구를 정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부족한 제가 사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구를 골랐습니다. 제 서품 성구와 뒷면 상분의 그림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 꿈은 ‘돌아온 탕자’에서의 둘째 아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의 탈을 쓴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당 잘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 정도면 첫째 아들이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말만 첫째 아들이고 하는 짓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면 하느님은 저에게 항상 당신의 자비로 저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기에 비록 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제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항상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사제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제게 “출신 본당은 친정 본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본당에 가든지 행복한 사제로 살아서 소박맞고 돌아오는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청량리성당 신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상도동성당

보좌신부 박상호 요한마리아비안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다. (창세기 22, 1-18)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이분들은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 늦은 나이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하기에 그러신 것 같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친척들의 아버지처럼 젊으셔서 나와 함께 말도 타고, 여행도 함께 다니길 원한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기엔 힘드시다. 아버지는 매일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천막 안에서 침묵 속에 머무르신다. 가끔 나를 데리고 하느님께 제사 드리실 때를 빼고는 멀리 움직이지 않으신다.

오늘도 아버지는 내게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늘 가던 작은 언덕이 아니라 사흘 동안 가야 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신단다. 아버지는 몸도 안 좋으신데,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왜 그 먼 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셨을까?

사흘 길은 먼 길이다. 타는 듯한 낮을 건너고 쌀쌀한 밤의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장소에 다다랐다. 그런데 종들은 놔두고 제사 물건을 내가 지고 따라오라 하신다. 번제물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하느님께서 마

련해 두셨단다. 산 위에 올라 좋은 장소에 터를 잡고 장작과 제단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번제물은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말이 없으신 아버지는 이제 나를 밧줄로 묶으신다. 왜 이러시는지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워 말을 건낼 수가 없다. 나를 장작 위에 눕힌 아버지가 이번에는 칼을 들고 다가오신다.

설마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옵니다.” 나는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잠시 정신을 잃고 난 후 깨어보니 아버지께서 어디선가 양 한 마리를 안고 오신다.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아까 일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 아버지께 따져 물을 수도 없다. 아버지가 만약 “하느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원하신다”라고 한마디만 하셨어도 될 텐데... 나는 하느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께 순명하는 아브라함과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아버지를 따라야 했던 이사악.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에 따

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저 맡겨진 운명에 순명해야 했던 성모 마리아.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하느님께 향했던 오롯한 마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재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느님의 청천병력 같은 말씀은 그에게 또 다른 시험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의 하느님이 아닌 이사악과 더불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은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 하나를 알고 계시고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당신께 “예”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수언 젤마노

하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하느님이 안계시다고 생각하거나, 멀어져 있다고 생각

하시거든 하느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가고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느님은 보고만 계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파괴함으로써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을, 하느님은 보고만 계신다고 하느님께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탓으로 자연이 망가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보속하는 시간이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그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의 작은 죽음의 조각들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순간순간 참아야 하고, 손해도 봐야 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아프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작은 죽음의 조각을 모아야 합니다. 이 작은 죽음의 조각들을 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부활은 죽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일상에서의 작은 죽음의 조각들을 잘 받아들여야 부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선 사람들 중에 감히 무릎 꿇어 죄를 빌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무릎 꿇어 용서를 청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웃으시며 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아버지에게서 멀어지셨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보시고 부활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또다시 잘못하고 죄를 짓겠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면 늘 그렇게 아무 말도 묻지 않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다면 아버지 하느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경희 마리아 수녀

칼 라너의 <주님의 기도>

제 마음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록 제 마음이 지옥 같을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빛나시며,
말 대신 신음소리가 나오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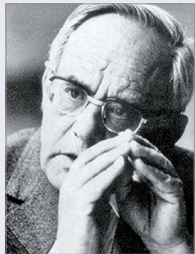
모든 것이 우리를 버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비록 땅에서는 서로 죽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생명이며,
땅에서는 생명의 끝처럼 보이는 것이
하늘에서는 당신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이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거나 배가 불러
나 자신이 가련한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시련 중에 죄와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죄와 유혹은 결국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게 할 뿐
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자유와 생명
안에서 해방하소서.
아멘.



*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1904~1984)의 기도문으로 2021년 12월 18일 대림절 특강에서 김종호 신부님이 낭독.

나의 은사, 김수환 추기경님



올해가 김수환 추기경님 탄생 100주년이라고 후보에 보도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추기경님은 나의 은사이십니다. 육십여 년 전 우리 학교의

독일어 선생님이셨다. 우리 학교는 대구 계산동성당 바로 옆에 있는 대구효성여자고등학교. 유명하셨던 전석재 신부님이 교장선생

님이셨다.

김수환 신부님은 눈만 쏘아지면 우리들을 불러내어 눈싸움하자고 하셨다. 그러면 1대 50의 눈싸움이 시작된다. 다른 반 학생들은 유리창 너머로 응원을 한다. 신부님께서는 성품이 꺾꺾하시고 다정다감하셔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다. 나는 고3 때에 결핵을 앓았다. 고3 때의 아픔은 인생에 치명적이다. 신부님은 내 자세를 보시고 병명을 물으셨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려 주셨다. 나는 눈물이 났다.

살아생전에는 찾아뵙지 않다가 돌아가셨다는 보도를 듣고 명동성당을 찾아갔다. 누

워게신 난간을 잡고 통곡하였다. 교우들과 용인 추기경님 묘소를 참배하였다. 노기남 대주교님과 그렇게 다정하시더니, 돌아가셨어도 다정히 손잡고 누워계셨다. 하늘나라에서 曉星(새벽별)이 되시어 우리를 비추어주소서. 어리석은 박범숙 엘리사벳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아멘.



박범숙 엘리사벳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는 성가대 활동



찬미예수님. 고등학교 시절 목요일 아침마다 학교 성당에서,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해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미사 때 은은하게 들려오던 오르간 소리는 저에게 성당과 미사의 매력을 일깨워주었고, 남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은 저의 마음을 출렁이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저를 본당에서의 성가대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였죠. 어느 곳이든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모임의 분위기는 낯설지만, 이곳 단원분들의 관심과 격려는 저의 불안과 떨림을 설레임으로 바꾸어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합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가대 활동은 저의 성당생활에서 감사와 소중함 그 자체였습니다. 단원분들과 주중 평일 저녁, 그리고 주일 아침 교중미사 전 소성당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화합과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었고 교중미사에서의 하나된 성가 봉헌은 위로자이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만 같았던 이 녀석은 맹위를 떨치며 우리 모두의 얼굴 반쪽을 마스크로 가리게 하였고, 직장은 물론 성당에서의 신앙생활도 위축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글로리아성가

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미사 중의 성가가 반주자의 오르간 소리만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성가대 1인 성가, 그리고 상황이 좀 나아졌다 싶을 때는 3인 성가로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정점을 지나 서서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3월도 막바지에 접어든 날 아침에 성당을 찾았을 때 성모님 옆 마당 한 칸에 홀로 피어있는 매화와 바람결에 떨어지는 꽃잎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답답해하고 주눅 들어 있던 사이에도 새롭고 활기찬 기운이 우리 곁에 소리 없이 씩씩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청랑리성당과 수십 년을 함께해 온 글로리아성가대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가를 통하여 우리 본당 신자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봉사하는 성가대 본연의 충실한 모습으로, 제가 맨 처음 이곳에 발을 내디딜 때처럼 새롭게 문을 두드리는 단원이 있을 때 불안함과 떨리는 마음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바꾸어 주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성가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기존의 단원들도 다시 돌아와 예전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있을 것이며, 많은 신입 단원들이 성가대의 문을 “푹! 푹! 푹!” 두드릴 것입니다. 글로리아성가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본당 모든 분들이 기도와 성가를 더욱 생활화하며, 이를 통하여 주님 말씀에 충실한 모습으로 위로

남경희 마리아 수녀님 부임 (2022년 2월 6일)



김선아 글라라 수녀님 부임 (2022년 2월 6일)



와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글로리아성가대 단장 이영민 라파엘

고통 중에 은총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성당 문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보니 말 그대로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이다. 나도 모르게 이 노래를 흥얼거려본다.

팔 남매 중 여섯째인 나는 칠 남매 중 맏이인 남편을 만나 딸 셋, 아들 하나 사 남매를 두고 시부모님 모시고 오손도손 잘살고 있었다. 남편이 건설현장 소장이었기에 수없이 이사를 다녔다. 여수로 이전한 뒤 1991년에 예비자 교리 3수인 남편과 함께 영세를 받았다.

1995년 4월 10일, 셋째 딸 주희(카타리나)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된 날 학교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가고 있었다. 광주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뇌가 손상되어 수술도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병원에서는 지켜보자고만 하겠다. 한없이 오열하는 나에게 남편이 등을 두드리며 울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고 만약 주희가 살아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너스라 생각하자.” 그 말을 듣고 혹시 주희한테 안 좋을까 나는 남모르는 곳에 숨어서 참 많이도 울었다. 그 와중에도 겁에 질려있는 사고 가해자에게 “악연으로 만났지만 서로 운이 안 좋은 것 같다. 이왕 벌어진 일 그냥 다리 뻗고 편하게 잡자라”고 했다. 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교장 선생님께서 “요

즘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라고 했다.

5개월 반 만에 의식이 깨어난 주희는 전남대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하였고 모두 박수치고 환호했다. 의식이 없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 병동으로 옮겨 지옥같은 재활치료를 받았다. 목을 뚫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중에도 ‘홀로 아리랑’,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등의 노래를 불러서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많이 힘들었다. 돌이 죽어버리려고도 했다. 나는 고통 중에 은총을 주신다는 말을 싫어했다. 주님을 미워했고 성모님상을 돌려 버렸다. 잘 웃던 나는 웃음을 잃어버렸고 내 마음은 삭막해지고 폐허가 되는 것 같았다.

모든 재활치료가 끝나고 다시는 못 걸을 줄 알았던 주희가 휠체어도 던져버리고 혼자 걸었다. 오른팔이 조절이 안 되어 장애가 남았다. 지체 1급 장애에서 지금은 3~4급 정도 된다. 미주상가의 노재철 원장님이 나를 보시더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고 백화점 문화홀에 가서 신나는 것을 배우라고 권하셨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바오로병원을 찾아가서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13년 동안 안내 봉사를 하며 몹시 바쁘게 살았다. 자원봉사는 많은 위로가 되었고 나를 살렸다. 지금은 고통 중에 은총을 주신다는 말을 다른 이들에게 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온 가족을 똘똘 뭉치게 해주셨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4남매가 대학이나 직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커 주었고 지금은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아픈 중에 성숙한다고 지금은 주변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당에 나가자고 한 남편이 고맙다. 주님이 계셨기에 나는 의지할 수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잘 견디며 살아온 것 같다. 지금은 나를 돌아볼 여유가 있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편하다.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나의 도움을 청하는 곳은 되도록이면 달려가서 돕는다. 몇 년 전 병원 봉사를 할 때 어떤 환자가 내 귀에 대고 아줌마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기에 봉사를 하느냐고 물었다. 순간 너무나 황당해서 그분을 멍하니 바라본 적이 있다. 봉사는 남이 시켜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원해서 자원봉사를 했고 즐거웠고 또 위로를 받았기에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예쁘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는다.

한 번쯤은 나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 괜히 어색해진다. 주님,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복희 마멜따



신민숙 로렌시아 수녀님 이임 (2022년 2월 4일)



박강인 카타리나 수녀님 이임 (2022년 2월 4일)



청량리성당으로 이적하기 전에 다니던 성당의 가톨릭성서모임에서 4년간 성경공부를 하고 말씀봉사가자 되었다. 가톨릭성서모임이 7년의 안식년을 7번 치루어 2021년에 희년을 맞이하였고 <가톨릭성서모임 성지순례>라는 수첩을 한 권씩 받았다. 마침 코로나19가 심해져 단체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에 우리 부부는 '제주도 한 달살이'를 떠났다.

첫 탐방지는 용수성지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하던 중 풍랑을 만나 표착한 곳이다. 이곳에서 첫 미사를 바쳤다고 하니 정말 뜻깊은 곳이다. 조그마한 목선 라파엘호를 타고 신부님이 겪으셨을 고난을 생

각하며 화살기도를 드렸다. 성 이시돌센터와 인접한 삼피소에 들러 묵주기도를 드리는 등 제주살이를 알차게 하다가 1월 31일 불현듯 용수성지에 다시 가보기로 하였다. 용수성지에서 산 콜라비가 워낙 맛이 좋았기에 다시 살 겸해서 갔는데 새로 부임한 신부님이 저녁미사를 집전하시는 소식을 듣고 어둠이 내린 성당을 찾아갔다. 신자 대부분이 농부였으며 낮에 농사일을 하고 저녁시간에 성당에 오신 어르신들이었다. 피곤하여 졸린 시간에 이렇게 성당에 오셨다고 칭찬하신 신부님, 나을 때는 신부님을 반기며 준비한 무지개떡을 받아들고 좋아했다. "웬 야식이야!"

2월에는 하루 일정으로 추자도를 향했다. 상추자도에 도착하여 삼치회로 점심을 하고 버스를 타고 예초리를 향했다. '눈물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대정성지에 묻힌 정난주 마리아의 아들 황경한, 신유박해의 진상을 기록한 백서로 인해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이 된 황사영의 2살 난 아들이 있던 곳이다. 평생 엄마를 그리며 제주도를 바라보며 살다가 간 묘소를 돌아보며 묵주기도를 바쳤다.

제주도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전국으로 성지순례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강화도, 서울, 울산, 부산 등지의 성지를 이어서 순례하였다. 문경의 성지에 들렀을 때는 너무 늦어 깜깜한 산길을 핸드폰 라이트에 의지하여 걷기도 했는데, 문득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성지순례를 통해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몸을 내맡기는 믿음이 강해졌다. 솔피성지, 연양성당, 미리내성지, 동래성당 등에 들렀을 때는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도 아닌데 미사에 참례할 수 있었다.

동래성당 미사 때는 희년의 마지막 날임을 강조하면서 직접 신자들에게 다가와 성체를 분배하시던 신부님의 강론 중에 노인 신자들에게 드

리는 위로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어느 할머니 신자가 희년을 맞이하여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기로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장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어 성경을 펴고 읽다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 성경책이 저절로 넘어가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희년맞이 성지순례를 못하였을지라도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위로와 함께 믿는 이에게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

12월 중순에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가터인 전북 완주의 초남이성지에 들렀을 때 아네스 수녀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요셉성당에 대하여 설명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청량리성당에 의탁하고 있는 나의 심정을 꼭 집어낸 듯한 기도였다. 치명자산 순교묘지에서 마리아바위를 보고, 전국 49개소 성지순례의 마지막인 전동성당에 들리니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베드로의 유해를 성전에 모시고 9일 기도 중이었다. 이렇게 뜻깊은 희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여, 이제 이웃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성당에 '그룹성경공부'가 개설되기를 기도드린다.



임주훈 프란치스코

점심 한 끼의 소중함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하실 수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저는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늘 똑같은 하루하루의 점심 한 끼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까지는.

코로나로 급식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지 이제 2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소소한 일상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게 됩니다. 점심식사이지만 아침부터 오셔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며 즐거워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애뜻하게 느껴지며 기다려집니다.

'사랑의 집'급식소는 작은 공원에 자리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요즘은 함께 식사는 못하지만 매주 1회 오전에 따로 담아서 한 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은 주먹밥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안 오시는 경우에는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면 당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지요.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두 분이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한동안 못 보았던 분들의 건강도 큰 걱정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며 휠체어를 타고 오시기도 합니다. 늘 평범하던 하루하루가 이처럼 소중한게 다가오니 하루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만나고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점심 한 끼의 소중함을 코로나를 겪으며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봉사자분들과 하루하루의 수고로움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한안수 골롬바

본당에서 본 코로나19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처음 성당 출입구에 체온을 재고 출입자 확인을 위한 통로를 설치할 때만 해도 금세 끝날 것으로 여겼다. 이제 만 2년이 넘어서야 봄이 비친다. 2022년 사순 첫 주일, 출입구 통로의 일부를 치웠다. 마치 바리케이드 같았는데 이제 트여 보인다고 신부님이 좋아하신다. 고난도 끝이 있을 것이다. 희망이란 그런 것이다.

성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미사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가톨릭 성당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졌다.

팬데믹에 따른 신앙활동의 제약 속에서 고심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을 보았다.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번민이리라. 야외미사, 단체 성지순례 등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신심을 도모하는 순수한 기도모임인 꾸리아 등의 기도도 전혀 할 수 없는 스산한 삶이었다. 완화된 여지가 조금만 보일라치면 신심 좋으신 신자분들이 신부님께 기도모임 등을 열어도 되는지 안타깝이 여쭙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나중에 신

부님은 이 모든 모습을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꾸준히 성당에 나와 주신 신자 분들이 참 고맙고 좋아 보였다.”는 말씀으로 정리하셨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희망이 보인다. 모두가 무서워하지 않는 심한 감기처럼 여겨야 할 듯하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설령 그 희망이 눈물을 동반할지언정 참고 가야 한다. 이는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끊임없는 숙명일 듯하다.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길과 같다. 가시밭과 덩굴로 뒤덮인 땅을 오래도록 많은 이들이 걸어야 비로소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희망이란 그런 것이라 여기고 숙연하게 기다린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길었던 코로나19를 통해 보는 은총의 모습이다.

총회장 김석종 라파엘



우리 성당 가는 길

옛부터 하늘 맑아
구름도 쉬고
고개 중턱 못 나그네
쉬어가던 곳



들며 나며 오가며
길은 멀어도
그나마 가까운 둘레길 돌아
마을 동네 오르는 오르막 초입

테 두른 십자가 머리에 이고
말없이 앉아있는 은회색 건물

붉은색 벽돌담 길게 두르고
나를 듯이 서 계신 돌성모님 뒷모습
청솔나무 푸른 가지 하나 둘 셋

담 모퉁이 따뜻한 해바른 양지
집 나온 길냥이 두리번 앉아
안 오는 잠 억지 졸음 끄덕거린다.

마을 동네 오르는 오르막 초입
우리 동네 우리 성당 뉘들 모를까
동대문구 청량리 오래된 동네

김덕항 요셉

머물다 간 자리

성당 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성모님이 반깁니다. 로비에서 코로나 발열 체크와 인사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내가 머물다 간 자리를 뒤돌아보면서 기억

을 더듬어 봅니다. 믿음이 해이해졌음을 느끼며 다시 다짐해 봅니다.

빈자리가 아니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꽉 채워진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사랑이 제일이며, 사랑만이 으뜸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

음은 빈수레입니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 석양은 저무는데, 한그루 나무만도 못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김신자 글라라

나의 기도

저는 청량리성당 교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청량리성당에 들릅니다. 영회원 사거리에 있는 뜰사랑교육원에 공부하러 오는 날은 꼭 청량리성당에 먼저 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뜰사랑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입니다.

예전에 뜰사랑에서 공부하던 중에 점심을 먹고 조금 여유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자매님 한 분이 자신이 청량리성당에 다니는데 함께 가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던 구

당 할아버지가 고소 고발을 당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청량리성당에 와보았습니다. 둘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자매님이 말하길 예전에 돈보스코 성인의 유해가 한국에 왔을 때도 직접 가서 뜰사랑과 구당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기도는 늘 나와 내 가족에게 머물러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님 덕분에 청량리성당이 좋아졌습니다.

청량리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

를 하고 성당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깁니다. 이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정부에 사는데 이곳 성당에 다니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반성합니다. 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량리성당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매님이 있어서 아름다운 성당으로 나에게 각인되어있는 곳입니다.

이정자 엘리사벳



사진으로 보는 청량리성당 2020년~2021년



▲ 신자석이 텃빈 주님성탄 대축일미사 (2020년 12월 24일)



▲ 주님성탄 대축일 (2020년 12월 24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2021년 1월 1일)



▲ 복사 졸업식 (2021년 2월 28일)



▲ 주님부활 성야미사 (2021년 4월 3일)



▲ 주님부활 대축일 (2021년 4월 4일)



▲ 견진성사 (2021년 10월 9일)



▲ 견진성사 (2021년 10월 9일)

코로나19 속의 나의 삶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하나씩 변화시키며 불안과 공포로 다가왔다. 하루하루 두려움과 미래의 불투명함이 계속되면서 성당에 갈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뒤로하면서 솔직히 심신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한가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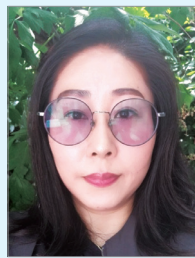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가까운 홍릉공원을 찾았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잘 가꾸어진 공원이 있다니. 새벽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당의 어르신들도 이런 곳에서 운동하시고 맑은 공기를 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일 이곳에서 혼자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며 아침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천장산 숲길까지 가게 되었다. 정상이 140m인 적당한 경사의 산이 나를 맞아주었다. 계단은 많지만 화사한 벚꽃이 우울한 마음을 밝게 해주고 함께하시는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천장산의 자연에 흠뻑 빠졌다. 바위틈에 피어난 연분홍 진달래의 소박함, 길가에 피는 들꽃까지 정겹고 사랑스러웠다. 정상을 넘어 조금 내려오면 마당바위가 있어, 그곳에서 몸을 풀고 정좌하고 호흡하며 온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쉬었다가 내려온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이었다.

성당에 가지 않으면 못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유 아닌 자유로움에 빠져 지내다 보니 하느님을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서서히 밀려왔다. 생각해보니 그 몇 개월 동안 나는 자연 속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지낸 것 같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러저러한 변화에 따르며 살아오다가 다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2년 전의 그 햇살과 같이 올봄의 햇살도 밝고 따듯했다. 주님은 나의 친구, 나의 산성,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두와 함께할 수 있음에, 코로나19의 시련에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수 데레사

기도



무언가를 잊은 듯
내 안에 큰 구멍이 생겨 공허합니다.
이 큰 구멍을 세찬 바람이
한 줌의 동정심도 없이
소스라치게 요동치며 관통하여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린 채
공허함을 채우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타인들을 찾아 헤매고
정신없이 우걱우걱 폭식을 합니다.
다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나 스스로 점점 지쳐갈 때
나도 모르게 성가를 부르고
주님께 두 손 모아 끝없이 기도드리면
내 안에 요동치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내 안의 큰 구멍이 평온으로 가득 차옵니다.

길 잃은 어린양은 먼 길을 돌아 돌아
주님의 따스한 품에 의탁하여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평온한 행복을 깨닫고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습니다.

김미진 글라라

〈늘푸른소식〉 제8호를 만들면서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일곱 번째 발간해온 〈늘푸른소식〉이 코로나19 사태로 한 해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제8호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의 중단을 알리는 신부님의 안타까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주일에도 조명등이 꺼진 텅 빈 성당의 예수님 고상(苦像)과 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0년 4월의 주님부활 성주간과 대축일에는 신자들이 전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베드로대성당에서도 명동대성당에서도 신자들이 없는 부활대축일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

장 만연한 뉴욕시의 대성당은 아예 임시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부활대축일 미사에서 전세계인의 격리와 이동제한에 의한 “고독한 부활절”은 ‘희망의 전염’이 되어야 한다”며 연대와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도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성당 마당에서 신부님이 집전하는 침묵의 영성체로 대신하였습니다.

새로 피어나는 봄꽃처럼 〈늘푸른소식〉도 2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내주신 원고들을 정리, 편집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도 몇 편 있었습니다. 모든 글

에는 글쓴이의 삶과 생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소박한 글일수록 더 맑게 비칩니다. 그런 글들을 읽고 저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봉사의 기회를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영 스테파노

